

세상을 이해하는 명언, 잠언, 속언

명언



학문, 예술에 대한 명언, 잠언, 속언

명언





학문, 예술에 대한 명언

- 가장 아름다운 주제는 자네들 눈앞에 있다.

<로댕, 1840~1917>

- 거장이라 함은 모든 사람들이 이미 보고 난 것을
그 자신의 눈으로서 숙시하는 사람이다.

<로댕, 1840~1917>

- 고상한 예술은 일개의 위대한 심령의 표현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.
그러나 위대한 심령은 매우 드물다.

<러스킨, 1819~1900>

- 고인의 조박을 앓는다.

<장자, BC 369~ BC 289>

- 곱학아세

<사마천, 「사기」, BC 145~BC 86>

- 기교가 농후하여 졸을 이루다.

<황정견, 「졸현송」, 1045~1105>

- 구이의 학문

<장자, BC 369~ BC 289>

- 군자는 배우기를 부끄러워 하지 않고, 묻는 것을 부끄러워 않는다.

<유향, 「설원」, BC 77~ BC 6>

- 궁한 뒤에 교하게 된다.

<구양수, 1007~1072>

- 글은 사람이다.

<뵈퐁, 1707~1788>

- 나를 아는 자는 그것은 오로지 춘추, 나를 죄하는 자도 역시 오로지 춘추.

<공자, BC 551~BC 479>

- 나 열다섯의 나이에 학문에 뜻하여, 삼십에 서고, 사십에 불혹하며,
오십에 지천명하고, 육십에 귀에 따르고, 칠십에 마음의 원하는 데로 따르며,
무리를 아니하였다.

<공자, BC 551~BC 479>

- 훌륭한 직공은 모든 것을 작품으로 만들어낸다.

<라블레, 「제1의 서: 가르강튀아」, 1494~1553>

- 윤리학과 마찬가지로 지리학으로도,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
세상을 이해하기는 참으로 어렵다.

<볼테르, 「철학사전」, 1694~1778>

- 당에 오르고 방에 들지 못한다.

<공자,「논어」,BC 551~BC 479>

- 때로 느끼어서는 꽃에도 눈물을 뿌린다.

<두보,712~770>

- 도덕률은 예술률이다.

<슈만,1810~1856>

- 행복이 부 안에 있지 않은 것처럼, 지혜도 학문 안에 있지 않다.

<슈발리에드부플레,「사유와 단편들」,1738~1815>

- 뜻이 이르는 곳에 붓이 따라간다.

<소동파,1037~1037>

- 누가 더 많이 알고 있는가보다는 누가 더 잘 알고 있는가를 알아보아야 한다.

<몽테뉴,「수상록」,1533~1592>

- 모든 불멸의 작가는 그 충심을 토로한다.

<러스킨,1819~1900>

- 모든 예술의 최고 과제는 형태를 빌려 한층 고상한 실재의 환영을 낳는 데 있다.

<괴테,1749~1832>

- 모든 위대한 노래는 참된 노래였다.

<러스킨,1819~1900>

- 모든 책을 믿는다면 책이란 없느니만 못하다.

<맹자, BC 372~BC 289>

- 바보는 지루할 뿐이지만, 현학자는 견디기 힘들다.

<나폴레옹 1세, 「금언과 성찰」, 1769~1821>

- 옹기장이는 옹기장이를, 장인은 장인을, 걸인은 걸인을, 가수는 가수를 시기한다.

<헤시오도스, 「노동과 나날」, 미상~미상>

- 수도사는 노래로 저녁을 먹는다.

<세르반테스, 「돈키호테」, 1547~1616>

- 문인은 서로 경시한다.

<조비, 「전론」, 187~226>

- 미는 감성에 의해 인식되는 완전하고 절대적인 것이다.

<바움가르텐, 1714~1762>

- 미는 느낄 수 있고, 또 만들 수 있다. 하지만 정의를 내릴 수는 없다.

<에머슨, 1803~1882>

- 미는 예술의 최고의 원리이며, 최고의 목적이다.

<괴테, 1749~1832>

- 미는 요사스런 할멈이다. 그 매력에 걸리면 신앙은 녹아 피가 된다.

<셰익스피어, 1564~1616>

- 미에는 객관적인 원리가 없다.

<칸트,1724~1804>

- 나는 진리의 대해를 앞에 한 바닷가에서 한 개의 조개를 주운 것에 불과하다.

<아이작 뉴턴,1642~1727>

- 방 안에 책이 없으면 몸에 정신이 없는 것과 같다.

<시세로,BC 106~BC 43>

- 배우고서 때로 이를 복습하면 이 또한 즐거운 일이 아니던가.

<공자,「논어」,BC 551~BC 479>

- 배우는 것은 산에 오르는 것과 같다.

<서간,170~217>

- 배우는 자는 쇠털과 같고, 성공하는 자는 기린의 뿔과 같다.

<이연수,「북사」,미상~미상>

- 배운 뒤에 부족함을 안다.

<「예기」>

- 배워 생각지 않으면 어둡고, 생각하면서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.

<공자,「논어」,BC 551~BC 479>

- 부당한 비평을 두려워하지 말라.

<로댕,1840~1917>

- 사람은 글자를 쓰는 동물이다.

<호메로스, BC 800~BC 750>

- 시와 노래는 지식의 시초이며, 또 그 마지막이며, 사람의 정신과 더불어 영원하다.

<워즈워드, 1770~1850>

- 시인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입법자이다.

<디즈레일리, 1804~1881>

- 좋은 전답 만 마지기보다 얇은 기능이라도 한 가지 몸에 따른 것만 못하다.

<추적, 「명심보감」, 1246~1317>

- 음악은 사람을 다스리는 데 성한 것이로다.

<순자, BC 298~ BC 238>

- 영감에 기대하지 말라.

<로댕, 1840~1917>

- 예술가는 계량기를 그 손이 아니라 그 눈에 갖지 않으면 안된다.

<미켈란젤로, 1475~1564>

- 예술가는 그 작품에 종속한다. 작품이 작가에게 종속하지는 않는다.

<노발리스, 1772~1801>

- 예술가에게는 일체가 미다.

<로댕, 1840~1917>

- 예술가의 천직은 인심의 심오에 빛을 보내는 데 있다.

<슈만,1810~1856>

- 예술은 감정에 불과하다.

<로댕,1840~1917>

- 예술은 인간에게 빵은 아니지만, 적어도 포도주이다.

<장파울,1763~1825>

- 옛 학자는 자신을 위해 하고, 지금의 학자는 남을 위해 한다.

<공자,「논어」,BC 551~BC 479>

- 웅대한 시를 제작하려는 자는 그 생활을 웅대한 시로 만들어야 한다.

<밀턴,1608~1674>

- 웅변은 마음의 영혼을, 노래는 감정을 달래 준다.

<밀턴,1608~1674>

- 위편 세 번 끊어진다.

<사마천,「사기」,BC 145~BC 86>

- 음악은 예언자의 기술이며, 영혼의 동요를 가라앉히는 유일한 기술이며,
신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중에 가장 장대하고, 그리고 가장 유쾌한 것의 하나이다.

<루터,1483~1546>

- 음악은 정신 속에서 일상 생활의 먼지와 때를 씻어 준다.

<바하,1685~1750>

- 음악의 양상이 달라지면 이에 따라 국가 만반의 것이 모두 변화한다.

<플라톤,1754~1824>

- 음악이 있는 곳에 악은 없다.

<세르반테스,1547~1616>

- 인도의 재보를 준다 해도 독서의 즐거움과는 바꿀 수 없다.

<에드워드기번,1737~1794>

- 임간의 흥업을 태워 술을 메우고, 바위의 이끼를 털고 시 한 수를 짓다.

<백거이,AD 772~AD 846>

- 지혜를 좋아하는 사람은 참으로 많은 일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.

<헤라클레이토스,BC 540~ BC 480>

- 저술가가 되려는 자는 먼저 학생이 되어야 한다.

<드라이든,1631~1700>

- 전문은 모두 믿지 말라.

<구양수,「춘추론」,1007~1072>

- 정신의 영양

<「베를린도서관」>

- 종소리는 베개 머리를 쳐들고 들으며, 향로봉의 백설은 발을 젖히고 본다.

<백거이,AD 772~AD 846>

- 좋은 시인, 좋은 화가가 되려면 천재라야 한다.

<괴테,1749~1832>

- 좋지 못한 예술가들은 항상 남의 안경을 쓴다.

<로댕,1840~1917>

- 중매이 코끼리를 더듬다.

<「육도경」>

- 지식 없이는 정직함은 박약하여 쓸모가 없고,
정직하지 못하고 지식 있음은 위험하며 두려운 일이다.

<존슨,1572~1637>

- 지식은 우리가 하늘을 나는 날개다.

<셰익스피어,1564~1616>

- 지혜가 부르지 않는가, 깨우침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.

<「구약」>

- 지혜로운 자는 물을 즐긴다.

<공자,「논어」,BC 551~BC 479>

- 진정한 기술에 있어서는 인간의 머리, 손, 마음은 모두 서로 협동하는 법이다.

<러스킨,1819~1900>

- 진정한 웅변은 웅변을 비웃는다.

<파스칼,1623~1662>

- 참된 예술은 예술을 비웃는다.

<로댕,1840~1917>

- 책으로써 다루는 자는 말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.

<유향,「전국책」,BC 79~ BC 8>

- 책은 그 사용법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.

<베이컨,1561~1626>

- 책을 남용하면 학문은 죽는다.

<루소,1712~1778>

- 큰 희열은 큰 공부에서 얻어진다.

<괴테,1749~1832>

- 태산 북두와 같다 .

<「당서」>

- 회화는 나의 아내이며, 나의 손에서 된 회화는 내 자식이다.

<미켈란젤로,1475~1564>

- 흔들리는 풀, 졸졸 흐르는 시냇물에도 사람이 귀를 기울인다면 모두 음악이다.

<바이런,1788~1824>

- 예술가가 예술을 창조하고 있는 동안은 하나의 종교가이다.

<쇼펜하우어,1788~1860>

- 조금의 광기도 없는 천재는 없다.

<아리스토텔레스, 「문제들」, BC 384~BC 322>

- 가난은 예술을 자극한다.

<테오크리토스, 「목가」, BC 310~BC 245>

- 검열은 까마귀들을 살려주고 비둘기들에게는 달려든다.

<유베날리스, 55~140>

- 불태워진 책은 세상을 비춘다.

<에머슨, 1803~1882>

- 격분이 시를 쓴다.

<유베날리스, 55~140>

- 체조는 음악과 자매지간이다.

<플라톤, 「국가」, 1754~1824>

- 의학의 실수는 안주인이다.

<플로티누스, 「격언집」, 205~270>

- 의학은 어떠한 규칙도 없고, 상황에 영향을 받는 기술이다.

<셀수스, 「의학에 관하여」, 1493~1541>

- 아이디어는 당신의 모자 밑에 있다.

<워너메이커, 1838~1922>

- 첫 느낌들과 두 번째 생각들, 가장 좋은 것은 이 두 가지에서 나온다.

<루이드보날, 「잠언과 성찰」, 1754~1840>

- 착상이란 사람이 부지런히 일을 하고 있을 때에 한해서 나타난다.

<막스 베버, 1864~1920>

- 모든 추론은 결국에는 감정에 굴복하게 된다.

<파스칼, 「팡세」, 1623~1662>

- 현학적 성향이란 지식을 과시하려는 것이다.

<새뮤얼존슨, 「램블러」, 1709~1784>

- 소인의 학문은 귀로 들어가서 입으로 나온다.

<순자, BC 298~ BC 238>

-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면 결코 멀리 가지 못한다.

<올리버크롬웰, 1599~1658>

- 재능은 인간의 지배하에 있지만, 인간은 천재의 지배하에 있다.

<J.R.로웰, 「나의 장서」, 1819~1891>

- 박해를 당해보지 않은 천재는 없다.

<볼테르, 「피에르 코르네유의 삶에 대한 고찰」, 1694~1778>

- 천재는 항상 신사이다.

<발자크, 「금언과 성찰」, 1799~1850>

- 천재는 사람들이 적당한 거리를 두고 바라보고자 하는 높은 건축물과 같다.

<루이드보날, 「잠언과 성찰」, 1754~1840>

- 어리석은 자는 묻지 않는다.

<김낙행, 「구사당집」, 1708~1766>

-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에는 만족하지 않지만, 자신의 지식에는 만족한다.

<톨스토이, 「안나 카레니나」, 1828~1910>